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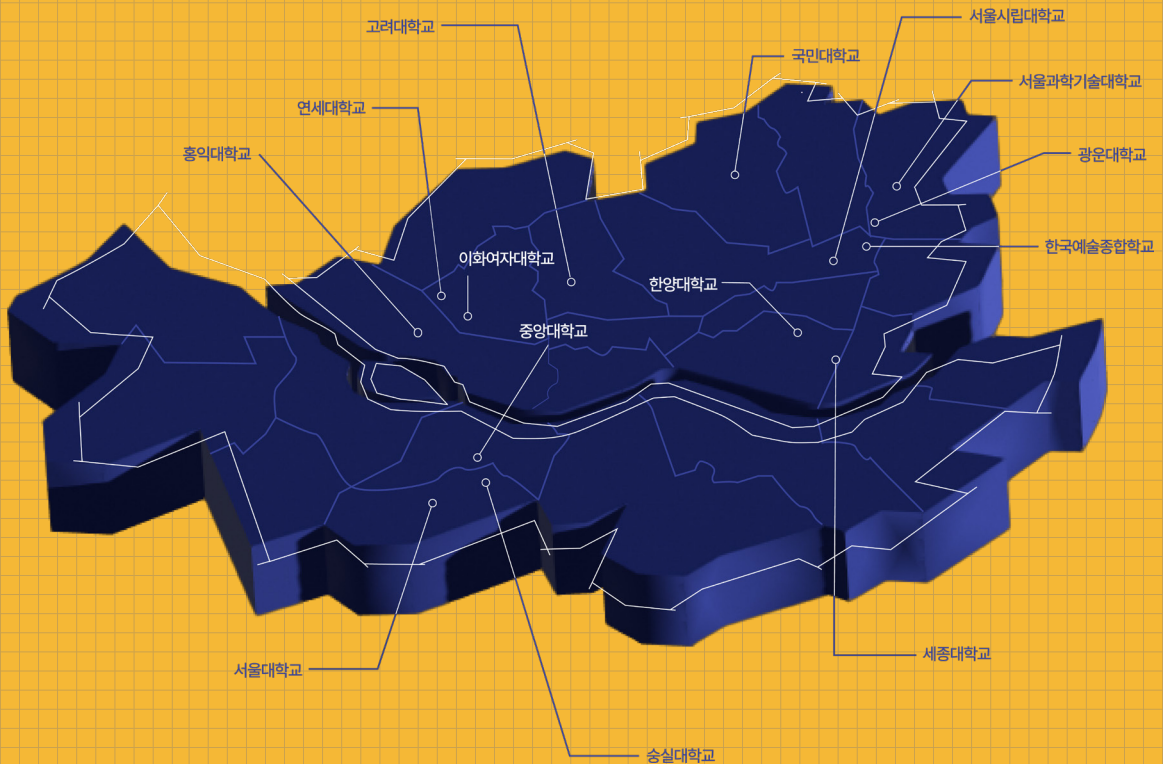
SHAPING SEOUL'S TOMORROW

A COLLECTIVE VISION BY ARCHITECTURE STUDENTS
(NEXT GENERATION OF ARCHITECTS)

서울의 내일을 만든다

미래세대 건축가들의 집단 비전

큐레이터 한양대학교 안기현 교수



SHAPING SEOUL'S TOMORROW

A COLLECTIVE VISION BY ARCHITECTURE STUDENTS
(NEXT GENERATION OF ARCHITECTS)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

미래세대 건축가들의 집단 비전

큐레이터 한양대학교 안기현 교수

SEOUL M! SOUL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서울도시건축박람회

서울의 내일을 만든다

미래세대 건축가들의 집단 비전

SHAPING SEOUL'S TOMORROW

A COLLECTIVE VISION BY ARCHITECTURE STUDENTS
(NEXT GENERATION OF ARCHITECTS)

전시기간 2023년 12월 29일(금) ~ 2024년 2월 25일(일)

Duration 29th December 2023 ~ 25th February 2024

전시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9)

Venu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119 Sejong Daero, Jung-gu, Seoul)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9:00 (입장 마감 18:30)

Opening Hours Tue-Sun
10:00-19:00 (Last Entrance 18:30)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지정한 날

Closed Every Monday(or the following day if
public holiday falls on a Monday.)
Days designated by Seoul Hall

문의 운영사무국
02)6242-5670
space@wayd.kr

Inquiry Management Office
02)6242-5670
space@wayd.kr



전시 서문

서울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축대학 학생들의 비전

메가시티인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역사와 혁신(기술)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하며, 번성하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많은 건축가, 계획가, 전략가들(이상 전문가)들에게는 서울은 하나의 큰 캔버스로, 때론 보존하고, 때론 혁신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하도록 디자인하며 역동적인 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과 도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는 건축대학 학생(미래세대 건축가)들에게도 서울은 동일한 대상일 것입니다. 오히려 더 진보적으로 관습적 현상에 도전하며 도시생활을 재정 의하고, 건축의 전통적인 경계를 초월하며 서울을 독특하고 활기 넘치는 미래의 도시로 상상할 것입니다. 서울은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디자인해볼 수 있는 건축대학 학생들의 캔버스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서울의 미래를 생각한 미래세대 건축가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을 모아, 서울의 미래비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생각을 가진 개인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세대 건축가이기에 가능한, 현실적인 틀에 기반한 사고의 한계를 뛰어 넘고,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건축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비전과 집단적 상상력을 선보이며 서울, 도시, 건축의 미래에 대한 담론에 기여할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대학

고려대학교(3)	서울시립대학교(3)	중앙대학교(3)
광운대학교(2)	세종대학교(3)	한국예술종합학교(3)
국민대학교(3)	숭실대학교(3)	한양대학교(3)
서울대학교(2)	연세대학교(3)	홍익대학교(3)
서울과학기술대학교(3)	이화여자대학교(3)	

Exhibition Pre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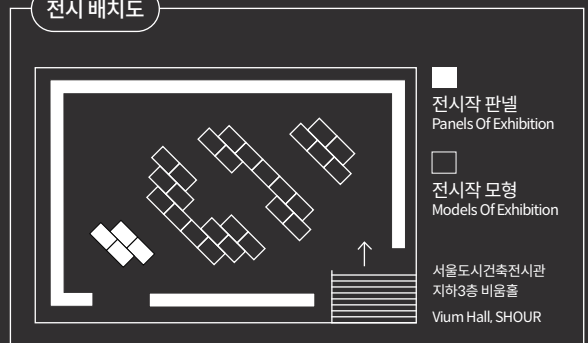
Architecture student's collective vision of Seoul's Future

Seoul, a megacity, is like a living, breathing organism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meet, history and innovation (technology) intersect, and it is constantly evolving, adapting, and thriving. For many architects, planners, and strategists (experts), Seoul is one humongous canvas where they are constantly designing (sometimes to preserve, sometimes to innovate, and sometimes to sustain) and changing the architecture and the city to keep it dynamic.

Likewise, Seoul will be the same destination for architecture students (future generation architects). Rather, it will be more progressive, challenging conventional status quo and redefining urban life, transcending the traditional boundaries of architecture, and imagining Seoul as a unique and vibrant city of the future. There will be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methods of making Seoul's future by architecture students.

In this way, this exhibition has collected the best and most creative works of the next generation of architects who thought about the future of Seoul, while more actively embracing the needs of the future. It will be a rare opportunity to not only share Seoul's future vision, but also connect like-minded individuals, experts, and citiz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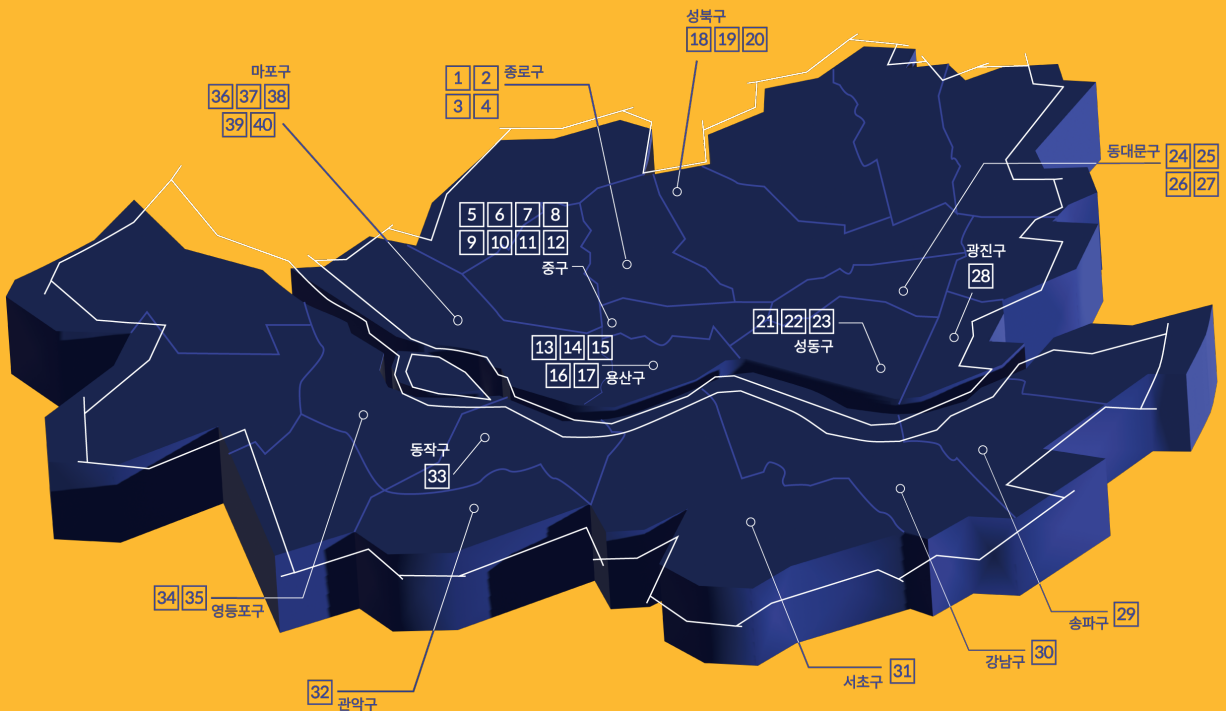
전시 배치도



참가자 리스트

no.	참가자	작품명
1	마윤재	거시적 죽음, 은유적 공간
2	박신우	송헌을 열어가는 길 Contextualizing the Terra Incognita
3	백승찬	The Platforms
4	이승영	오래초등학교 (ORAE ELEMENTARY SCHOOL)
5	강지원	수표동 업무시설
6	김동희	AFTER MUSEUM : MUSEUM OF DEMOLISH)
7	변지수	체류기간 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 호텔단지 계획
8	신명관	Sustainable Weave 새로운 친환경 복합단지의 비전을 제시하다
9	윤호원	ROTHKO MUSEUM : 'THE RED'
10	이예원	FUTURE PORT EULJIRO_ENSEMBLE ARCHITECTURE
11	이혜승	Volume of the Film; Cinema
12	최현지	PLAFICE
13	김혜리	Reclaiming Daily Reflection14
14	박창현	Alleyway housing_haebang
15	변아영	BLUEPRINT FOR THE FOOTBRIDGE
16	조동현	Boundary Layer
17	주혜규	A Vertical Journey on a Botanic Playground
18	구민준	Platform B
19	김세광	Gardening School
20	김태윤	Horizontal Ladder
21	박현민	Unveiling Vernacular Ornaments

no.	참가자	작품명
22	최재혁	임종의 도시_저자도복원, 무연고 장례
23	하신영	Co-exist
24	위영진	We are always in the process
25	정왕기	SEOUL HYPE
26	전지호	Bibliotalk
27	허해인	Architecture of two different lifespan for construction sites
28	이동찬	The FFC : future farming complex
29	김철휘	Excavating Past, Present and Future
30	김려현	Bikitecture : Green Energy Cycling in Architecture
31	이동원	City for the Dead : 죽은자들을 위한 도시
32	송찬	The data - pump
33	서보석	Artificial Mountain
34	곽지환	Vertical Forestscape
35	김유림, 박근우	Framing Ground: City in a Spectrum
36	곽건호	서교 어린이놀이터
37	배다희, 조희재	FLOOD OR FLOAT?
38	이동휘	PROJECT : DANDELION
39	이지민	Hydro Covnergence
40	이지민	Floating by new way



1

거시적 죽음, 은유적 공간

마윤재
국민대학교

대상지
인왕산 기차바위 인근

프로그램
Mental space

원자는 생명의 소멸과 생성의 과정에서 불멸하며 이는 도시에서의 죽음을 순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주 의 거대한 항성의 폭발에서부터 불에 타 재가 된 인왕산의 생명의 흔적은 미시세계의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에서 볼 수 없는 상상의 영역에 귀속되어 은유적 공간구조의 mental space로 명명된다. 프로젝트에서 2차원의 드로잉은 3차원의 다양한 공간으로 거듭나며 도면의 선형적 경험과 신체적 경험 사이의 괴리를 낳는다. 건축에서 마스터의 계획과 사용자의 경험은 늘 균열과 재해석 안에서 존재했다.

Atoms are immortal in the process of life's extinction and creatio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a cycle of death in the city. In this sense, from the explosion of the universe's massive stars to the traces of life on the Inwang mountain, which was burnt, are conn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icro-world. The micro-world is an imaginary realm not visible in the macroscopic world, belonging to the metaphorical spatial structure of mental space. In the project, two-dimensional drawing is reborn as various three-dimensional spaces, resulting in a gap between the a priori experience of drawing and experience of physical. In architecture, the master's plan and the user's experience have always existed within cracks and reinterpretations.

2

송현을 열어가는 길 Contextualizing the Terra Incognita

박신우
서울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8-9
열린송현 녹지광장

프로그램
미술관, 수장 공간

송현을 비롯한 서울 내 이전적지 개발 과정에서, 큰 땅을 건축으로 장악하려 들기보다 필지 모서리의 보행가로에 면하여 단계적으로 열어가는 이해를 시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린 거대한 공터를 주변 맥락에 얹히는 도시적 전략으로서, 송현 동쪽에 접한 감고당길과 그 지하의 북계천인 안국동천의 잠재력을 실험했습니다. 길과 물길은 미술관으로 건축화되어 사이트 남북으로 면한 인사동과 북촌의 보행경험을 연속시키며, 길 맞은 편의 공예 박물관과 대응합니다. 북악산과 청계천의 생태를 잇는 동시에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문제에 대응합니다.

Rather than taking control of a vacant land of former u.s. army base in seoul, this project tried to shift the understanding by humbly reopening the site from the pedestrian walkways adjacent to the land. As an urban strategy in order to quickly recontextualize the songhyeon-dong, this project tested the potential of gamgodang-gil adjacent to the east of songhyeon and anguk-dongcheon, a stream culverted in 1960s. The passage and waterway are architecturalized as art museums to connect the walking experience of insa-dong and bukchon, and resonates with the seoul craft museum across the street. This may also connect the ecology of bugaksan mountain and cheonggyecheon, while responding to the flooding problem caused by heavy rain in summer.

백승찬
세종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4

프로그램
전시시설

오랜 시간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학로, 그 관문 역할을 하는 마로니에 공원에 새 미술관을 제안합니다. 과거에 전시 기능만 제공하던 미술관은 현대에 들어 교육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대중들이 더 쉽고 편하게 미술에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The Platform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미술관의 각 시설을 밖으로 빼내어 소통의 촉매 역할을 최대화합니다. 떨어진 시설들 사이는 서서히 낮아지는 선큰 광장이 있어 기존 마로니에 공원의 볼거리인 버스킹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의 무대가 됩니다.

We propose a new art museum in Marronnier Park, which serves as the gateway to Daehak-ro, which has long established itself as a center of performing arts. In the past, art museums primarily served the function of exhibition spaces, but in modern times, there is a shift towards incorporating various programs, includi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commercial spaces, to encourage easier and more convenient access to art for the public. "The Platform" takes it a step further by relocating each facility of the art museum to the outside, maximizing its role as a catalyst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separated facilities, there is a gradually decreasing Sunken Square, which serves as a stage for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busking performances, a spectacle of the existing Marronnier Park.

이승영
고려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4길 7

프로그램
교육시설

지난 날의 학교는 감옥과 같았다. 교육과 통제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안된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지난 날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과 동시에 발달을 위한 곳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은 상호작용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북촌의 한옥 속 유기적 공간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나무와 땅, 마당과 마루, 담장과 같은, 오늘 날의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흔적들을 다시 아이들의 손에 들려주고자 하였다. 함께 살며, 배우며, 사랑하면서.

The schools of the past were similar to prisons. Should schools, designed for the most efficient means of education and control, still persist in their outdated form despite the reality of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s? Schools serve not only for students' education but also as places for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children must grow through Interaction, forming connections with the world. Hence, I sought possibilities within the organic spaces of Hanok in Bukchon. I aimed to reintroduce traces disappearing in today's society, such as wood and soil, Madang and Maru, and Damjang, into the hands of children. Together, living, learning, and loving.

5

수표동 업무시설

강지원
연세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10 외 5필지

프로그램
업무시설

청계천에는 어떠한 도시적 형성물이 존재했는가. 고상가옥 형태의 주거방식이었던 바라크, 복개된 청계천을 가로지르던 청계고가도로, 청계천으로 인해 단절된 지상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표교 등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띄워왔던 역사를 가진 청계천 변에 역설적으로 '땅을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업무시설을 계획함으로써 고층화로 인해 지상층과 점점 멀어져 가는 현대의 업무공간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땅의 감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업무공간을 제안한다. 구조물을 지상층으로부터 띄우는 것에 익숙했던 청계천 변에서, 이 업무공간은 땅과 가까워지고자 한다. 청계천에 존재했던 도시적 형성물의 성격과 상반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효과를 강하게 드러낸다.

What kinds of urban constructions have been existed around the Cheonggye river? Those constructions include Barak, which was a type of 고상가옥, elevated road over the river, and Soopyo bridge connecting severed areas. All those constructions have been a reflection of 'floating' from the river. In this context, I propose a new work space that provides a complete feeling of earth by designing work facilities to be grounded along Cheonggye river. This work facilities aim to be closer to the ground and these efforts may be leading to paradoxical perspective from previous constructions.

6

AFTER MUSEUM : MUSEUM of DEMOLISH

김동희
송실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3
(그레벵뮤지엄 리모델링)

프로그램
전시시설, 상업시설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을지로에 위치한 구 미국 문화원에 대한 리모델링 프로젝트로서, "건물의 생애주기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리모델링의 새로운 단계 분화를 통해 단순히 '물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건물의 '해체 과정'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제안한다. 몇 년 동안 진행되는 행위예술의 임시전으로써 이 과정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전시 형태를 제공하고 완성된 건물의 여백을 통해 기존 건물의 흔적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무너짐은 공허하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너질 무언가를 쌓는다."

As a remodeling project for the former American Cultural Center located in Eulji-ro, which has been in the same place for a long time, it starts with the question "Are there any moments that we cannot experience during the building life cycle?" As an answer to this, we propose an art museum that displays the "demolition process" of the building rather than simply exhibiting "articles" through new stages of remodeling. As a temporary exhibition of performing arts that has been held for several years, this process will provide visitors with a new form of exhibition and allows them to feel the traces of existing buildings through the blank spaces of the completed building.

"Collapse is emptiness. And we pile up something that will collapse again."

7

체류기간 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 호텔단지 계획

변지수
세종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중구 소월로 50
(구)힐튼호텔 일대

프로그램
호텔

서울 중구 소월로에 위치한 힐튼호텔과 그 주변은 서울역이라는 서울 교통의 중심에 인접하여 있다. 다양한 목적과 체류기간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도시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체류기간과 목적을 분석하여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복합 호텔 단지로써 도시와 관계를 재설정 하려고 한다. 관광객, 여행자 등의 이용뿐만이 아닌 기존 도시의 사람들까지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호텔 복합 단지로서 서울 각지로의 연결을 기대한다.

Hilton Hotel, located in Sowol-ro, Jung-gu, Seoul, and its surroundings are adjacent to Seoul Station, the transportation center of Seoul. Although it has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various purposes and lengths of stay, it is unable to accommodate people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the city. Accordingly, by analyzing various lengths of stay and purposes, we are trying to reset the relationship with the city as a complex hotel complex that meets people's needs. As a new type of hotel complex that will be used not only by tourists and travelers, but also by people from the existing city, it is expected to connect to various parts of Seoul.

8

Sustainable Weave 새로운 친환경 복합단지의 비전을 제시하다

신명관
세종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중구 소월로 50일대

프로그램
공동시설, 업무시설, 호텔, 상업시설

대상지가 위치한 서울 도심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과 녹지의 비율이 3.7%에 불과하고 우측의 남산, 북측의 인왕산과 같이 보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한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서울의 중심부 그리고 기존의 도시에서 가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건축으로서의 대안을 지속 가능한 연결이라는 뜻의 Sustainable weave를 통해 새로운 친환경 복합단지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owntown area of Seoul, where the target site is located, has a mere 3.7% ratio of parks and green spaces available for citizens, despite iconic mountains like Namsan to the south and Inwangsan to the north. Apart from these less accessible mountains,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easily accessible green spaces for people. Through this project, we aim to address the inherent challenges of Seoul's central core and existing urban issues, necessitating consideration of economic viability. We seek to contribute towards resolving the current shortage of practical green spaces by presenting a vision for a new environmentally friendly mixed-use complex. This vision, coined as "Sustainable weave," aims to offer an alternative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emphasizing continuous connectivity in the heart of Seoul, and to propose a solution to the ongoing ne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윤호원
송실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3

프로그램
전시시설

이예원
연세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중구 산림동 일대

프로그램
4개동 복합시설

대지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을지로 안 100여 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 미국문화원의 건물이다. 본 프로젝트는 작가를 선정해야 하며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로 현실과 다른 차원의 그림, 관람자와 소통하며 그림으로 하여금 감정을 드러내는 추상표현주의 화가 마크로스코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작가의 특성과 대지의 특성에 맞게 기존 건물의 그리드 체계 안에서 사선의 매스를 배치하여 작가만의 전시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며, 전시는 플래시포워드 기법을 활용하여 시작과 끝을 유작으로 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그림을 더 잘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였다.

The site is a former American Cultural Center building that has been maintaining one place for more than 100 years in Eulji-ro, where the present and the past coexist. This project is a project to select artists and remodel them into museums, and it was conducted by selecting abstract expressionist artist Mark Rothko, whose paintings take on a different dimension from reality, and communicate with visitors and expresses emotions in painting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 and site, diagonal squares are arranged in the grid system of existing buildings to create an exhibition space for artists, and the exhibition utilizes flash-forward techniques to create a beginning and end of the work and to better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artist's paintings.

을지로의 작은 가게들과 그들을 이어주는 을지로만의 교통수단과 골목길은 산림동 블록을 하나의 거대한 공장으로 기능하게 하는 컨베이어 벨트이다. 우리는 세운상가, 산림동을 지나 방산시장까지 축을 잇고 재개발 될 주변부를 그 길에 접한 건물 위에 적층해 아이디어부터 제조, 가공 및 후가공, 패키징까지 가능한 창조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FUTURE PORT 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여정의 발판이 될 항구 도시로, 그들이 기반을 다질 동안 값싼 가격에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제공한다. 기존 을지로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철골 구조와 프레임으로 구성된 그리드만을 제공하며, 공간을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채워 나가는 것은 오로지 사용자의 몫이다.

Euljiro's small stores and the transportation and alleyways connecting them are conveyor belts that make the Sanlim-dong block function as a huge factory. We wanted to create a creative production system that from ideas to manufacturing, processing, and packaging is all possible, by connecting Sewoon Shopping Center, Sanlinm-Dong to the Bangsan Market in axis and stacking the surrounding area that will be redeveloped on the buildings facing the road. Future Port is a port city that will serve as a springboard for many creators' journeys, providing them with flexible space to change at a low price while they lay their found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Euljiro residents, it only provides a grid consisting of basic steel structure and frame, and it is up to the users themselves to construct and fill the space.

이혜승
국민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2

프로그램
영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

최현지
한양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중구 마장로1길 22

프로그램
업무시설(패션 공유 오피스)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뜻하는 ‘Solastalgia’라는 스튜디오 주제에 따라, ‘최근 우리 일상 안에서 흔했지만 점점 사라지고 황폐해지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설계를 시작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코로나 이후 급격히 방문율이 낮아진 영화관이 떠올랐다. 영화관은 코로나라는 영향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변화로 서서히 황폐해지고 있었다. 영화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지만, 영화관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전통적인 영화관을 탈피하고 영화를 해체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체험하는 공간을 제안한다.

Based on the studio topic, ‘Solastalgia’ which refers to the distress that is produced by environmental change impacting on people, the project began with the question, “Where is a space that has been common in our lives, but is gradually disappearing and devastated?” In response to this, a cinema came to mind. Cinemas have recently suffered from the impacts of COVID-19, as well as changes in various industries and cultures. While movies continue to attract audiences, the physical space of the traditional cinema has lost its appeal. This project aims to transcend the conventional cinema experience by deconstructing the film to create a new space for experiencing movies.

[PLAFICE]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공간에 대하여 기존의 효율과 경제의 논리가 아닌, 유연하고 능동적인 공간으로서 업무공간을 제안한다. 일하는 것을 하나의 사고의 과정으로 치환하고, 놀이와 융합하여 공간을 구조화한다. 이로써 일과 놀이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연속적인 놀이 흐름을 형성한다. 궁극적으로 놀이는 일시적 환기를 넘어 능동적 사고의 주체가 되며, 각 놀이는 공유되어 발전하는 오피스 문화를 창출해낸다.

[PLAFICE] Proposes a workspace as a flexible and proactive space, not the conventional logic of efficiency and economy. Work is converted into play as a cognitive process, creating a structuralized playing space. Consequently, work and play form an inseparable relationship, creating a continuous flow of play. Ultimately, play becomes the subject of active thinking beyond temporary pleasure, promoting a shared and evolving office culture.

김혜리

이화여자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66

프로그램

목욕탕

물은 역사적으로 창조와 파괴, 생명과 죽음, 에너지의 근원, 세상의 거울과 같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고대 문명과 신화, 종교의식에서 공유하고 있는 물의 속성이다. 물과 인간이 접촉하는 방식 중 하나인 목욕은 문화권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 목욕문화의 정신적 측면, 위생과 질병 치료의 속성, 사교적 성격에 대한 생각은 공통적이다. 특히, 목욕은 몸에 걸친 것을 모두 내려 두고 물에 스스로를 비취보며 씻는 행위라는 점에서 물을 사용하는 다른 의식과는 달리 가장 일상적인 성찰이라는 차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일상적인 성찰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목욕탕의 잠재성을 이끌어냄으로써, 건강한 인간과 도시의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안과 혼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나름대로 무언가를 준비하지만, 다른 일에 비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은 후순위가 되기 쉽다. 게다가 목욕의 위생, 사교적 측면에 치중하여 목욕탕이 대형화, 고급화되면서, 씻는 행위 자체의 정신적 의미가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목욕이라는 일상적 성찰의 시간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감각, 공간의 스케일 측면에서 다양화하고, 성찰의 과정을 시퀀스로 엮은 목욕 공간을 제안한다. 이로써 목욕에 내재된 일상적 성찰의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목욕탕이 기존의 공중위생의 목적을 넘어 대중정신건강을 위한 공간, 건강한 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Water has historically held symbolic meanings: creation and destruction, life and death, the source of energy, and a mirror of the world. These attributes of water have been shared in ancient civilizations, myths, and religious rituals. Bathing, as a way for humans to interact with water, varies across cultures, but there are common aspects related to the spiritual dimension of bathing culture, hygiene and disease treatment properties, and its social nature. Particularly, bathing stands out with its distinct meaning as the most daily introspection ritual, that individuals immerse themselves in water, shedding their external layers and reflecting upon themselves. This project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the bathhouse as a space for everyday introspection, contributing to the foundation of a healthy city. In an era where anxiety and confusion prevail due to external factors,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find moments for self-reflection and contemplation. However, with the prevalence of functional showers,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bathing has diminished. Moreover, as bathhouses have become larger and more luxurious, emphasizing hygiene and social aspects of bathing, we have lost the time for daily reflection on bathing. Therefore, this proposal suggests a space that diversifies the ways in which we interact with nature, including water, in terms of sensory aspects and the spatial scale, intertwining them in a sequence of reflection. Through this, I aim to restore the function of daily introspection intrinsic to bathing and further argue that the bathhouse extends beyond its traditional role in public hygiene, serving as a space for enhancing public mental well-being and as a foundation for a healthy city.

14 Alleyway housing _ haebang

박창현
중앙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일대

프로그램
집합주택, 주민편의시설

본 설계안은 한국의 경사지 속 방치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주거지 준비를 도시, 건축, 사람 등 여러 관점에서 제시한 프로토타입적으로 계획안입니다.

This design plan is a prototype plan that presents residential maintenance for abandoned old residential areas on slopes in Korea from various perspectives.

15 Blueprint for the Footbridge

변아영
연세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00 나진상가 12,13동

프로그램
상업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서울의 복개천 중 만초천과 복개된 후 생긴 용산전자상가를 알아보았다. 특히, 용산전자상가와 만초천의 역사적 관계를 짚어 보며 이 고가 통로의 가치를 발견했다. 고가통로와 건축물의 구조체가 결합하여 언제든지 이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오래 지속되는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하기를 기대했다.

용산산업과 관련된 데이터 도서관, 전시홀, 세미나실, 상담실이란 프로그램을 각각 하나의 매스로 설정해 구조체에 끼워지며 나머지 부분은 오피스, 정신건강센터, 주거 공간으로 구성된다.

I looked into ManchoCheon, one of the covered streams in Seoul, and Yongsan Electronics Market built on Manchocheon Stream. I discovered the value of the footbridge in Yongsan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Yongsan Electronics Market, and Manchocheon. The footbridge in Yongsan and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are combined to allow new buildings to be built based on this structure in the future. Therefore, the building itself would function as a long-lasting infrastructure.

The data library, exhibition hall, seminar room, and counselling room related to Yongsan Industry are each set as one mass and inserted into the structure, and the remaining parts are offices, mental health center, and residential space.

16 Boundary Layer

조동현
서울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21,
용산기지 내부 병원 부지

프로그램
공원

도시와 공원은 공존하며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경계가 있다. 용산기지 내부에 위치한 대상지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미군 병원 부지이나, 용산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인공과 자연이 만나는 경계가 될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정의하는 경계층은 경계선과 달리 하나의 영역을 만든다. 경계층을 경험하는 대상은 공원 이용자 그리고 대지를 투과하는 물이다. 물은 식생으로 흡수되어 느린 정화의 과정을 거치며 사람은 경계층에 다가가며 시각, 동선상으로 이벤트를 겪는다. 물과 사람 모두 경계층에 수직방향으로 다가갈때 그 속도가 느려지며 수평방향으로 이동할때 속도가 빨라진다. 일반적인 가장자리로서 기능하는 경계가 아닌 두께를 가진 경계층을 디자인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The city and the park coexist, and there is inevitably a boundary between them. The site, located inside Yongsan Garrison, is the unused US military hospital, but with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it is expected to become a boundary where artificiality and nature meet. Unlike the boundary, the Boundary Layer defined through the project creates an area. Those who experience the Boundary Layer are park users and water permeating the land. Water is absorbed into vegetation and goes through a slow remediation process, and people experience events visually and movingly as they approach the Boundary Layer. Both water and people slow down as they approach the Boundary Layer vertically and increase in speed as they move horizontally. The goal of the project is to design a Boundary Layer with a thickness rather than a boundary that functions as a normal edge.

17 A Vertical Journey on a Botanic Playground

주혜규
이화여자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 고수부지 일대

프로그램
에너지재생플랫폼 도시형식물원

도시화된 일상은 자연의 필연적 빈곤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자연을 체험하는 인위적인 공간인 식물원을 서울 한강 위에 조성해본다면, 이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는가? 식물원은 이제 산속 깊은 전원에서 식재를 종류별로 분석하는 연구시설의 범주에서 벗어나며 점차 도시 내에 조성되고 있다. 운영 목적 또한 도시에서 다양한 식물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가드닝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형식물원 조성과 더불어, 기존의 방식보다 더욱 식물원을 다양한 시각적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한 시선으로 식재를 관찰하는 방식이 아닌 몸을 직접 움직여가며 식물을 바라보는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나선형 램프를 활용하여 식물원 내외부로 언덕 오르거나 산을 타는 듯한 극적인 체험을 구현할 것이며 식재경험으로서의 정글적 체험을 제공한다.

Urbanized daily life leads to the inevitable poverty of nature. Then, how can we approach a botanical garden on the Han River in Seoul, an artificial space where we can experience nature? Now, botanical gardens are gradually being created in cities, deviating from the category of research facilities that analyze deep mountain mid-till planting by type. The purpose of operation is also evolving into a gardening experience or educational program for people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various plants in the city. In order to make the botanical garden a more diverse space for visual 'experience' than the existing method, an experience of directly moving the body to view the plant should be provided rather than a way of observing the plant with a comfortable gaze. Finally, this project will implement a dramatic experience such as climbing hills or mountains in and out of the botanical garden using spiral lamps, and provide a jungle experience as a planting watching.

구민준
홍익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5길 22

프로그램
봉제 산업 플랫폼, 체육시설, 주거시설

김세광
고려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 77

프로그램
초등학교

봉제 공장이 곳곳에 있는 보문동에는 한껏 원단을 싣은 오토바이가 종종 보인다. PLATFORM B는 자율주행 로봇이 오토바이를 대체한 시점을 전제로 한다. PLATFORM B는 봉제 물류 터미널, 1인 및 소규모 가구를 위한 주거 시설, 체육시설을 프로그램으로 한다. 미래의 불확실한 프로그램을 담기 위해 건축은 자유로워진다. 기둥과 코어만 남긴 저층부는 비워진 상태로 하역공간이나 공원이 되기도, 필요에 따라 근생시설이 들어오기도 한다.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구조벽과 건식벽으로 구성되는 가변적 주거 공간에서도 이어진다.

Motorcycles carrying clothes can be found easily in bomundong. Platform b presupposes the time autopilot robots replace motorcycles. Clothing logistics terminal, residences for small family, sports facility are the main programs of platform b. To embrace uncertainty of futuristic program, architecture becomes free. ground floor, where only columns and core is left, is a vacant space being part of neighborhood park or loading area of the terminal. or necessary facilities may enter. The concept of freedom extends to flexible residential area composed of structural walls and dry walls.

“가드닝 학교”는 주변이 아파트로 가득한 미아 초등학교 부지에 위치하는 학교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비교적 적다. 가드닝 학교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진짜 자연을 제공한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형태가 지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경사진 지형 안에 묻혀있어, 얼핏 보면 학교가 아니라 공원, 혹은 언덕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이들은 이러한 언덕과 같은 학교 곳곳에 있는 정원에서 식물을 직접 기르고 가꾸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정원은 교실 밖에 넓게 펼쳐져 있고, 교실 사이 사이에 ‘포켓 가든’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교실 상부에 있는 온실 정원은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A gardening school is a school located on a ‘Mia elementary school’ site that is surrounded by apartments. Children growing up in apartment complexes have relatively limited access to nature. Gardening schools provide real nature for children growing up in such an environment.

Gardening schools are hidden in sloping terrain rather than being exposed above ground, so from the outside it looks more like a park or a hill than a school. Children learn to grow and care for plants in these hilly gardens, which are located throughout the school. There are large open spaces outside the classrooms, pocket gardens between classrooms, and winter garden on top of classrooms.

김태윤
고려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7가길 39
(안암초등학교)

프로그램
초등학교

감옥을 연상시키는 한국 초등학교의 형태는 도심 속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커뮤니티적 성격이 요구되는 초등학교의 프로그램적 성격과 대비됩니다. 많은 학생 수와 그에 따른 많은 학교 시설이 요구되던 시대에 건축된 학교들은 현재 절반으로 감소한 학생 수와 변화한 교육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따른 학교의 유형학적 변화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교실은 27 x 54미터의 거대한 형태로 공중에 띄워져 있습니다. 이는 직육면체의 커뮤니티 매스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공중에 띄워진 교실은 외부로부터 동선과 시선을 차단하지만 수직적으로 매스를 관통하는 윈터가든에 의해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유 기적 형태의 조경은 인근의 소규모 주택과 복잡한 도로에 반응하여 높은 포용성을 갖습니다.

Korean elementary schools, initially resembling prison facilities, became barriers to communities. Despite the intent as urban hubs, imposing structures alienated neighborhood. Over time, schools shifted from occupational training to socializing hubs, with the current student population halved. In Anam-dong, a project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school and neighborhood, potentially evolving into a broader "Practice" initiative. The design features two 27 x 54-meter elevated classroom blocks supported by rectangular masses for community programs. Vertical connections blend indoor and outdoor spaces, and light chimneys serve as winter gardens. Organic landscaping integrates the neighborhood with the urban context, fostering inclusivity.

박현민
국민대학교

대상지
응봉산 정상

프로그램
파빌리온

장식에 대한 논쟁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거두되는 화제였다. 로마네스크의 아치가 모여 볼트가 되고 그 사이 형성되는 스펀드 렐은 창발하는 장식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였다. 우리나라의 공포는 구조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었다. 목조 건축을 고집하던 한국의 갑작스런 개화와 단절은 <한옥>의 미래를 그릴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조선의 시대가 계속되어 장식이 발전했다면 지금과는 또다른 한옥의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 처마를 받들던 공포는 더욱 확장되고 장식과 구조의 영역의 경계를 넘나든다.

The debate over decoration has always been a topic that transcends time. In Romanesque architecture, the arches gather to form vaults, and the spandrels formed in between serve as a structure that can satisfy the desire for decoration. In Korea, "GONGPO" played a dual role of serving a structural function and being responsible for decoration. The sudden modernization and break from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in Korea led to a situation where it became impossible to envision the future of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s). If the Joseon era had continued, allowing for the development of decoration, one can imagine a different appearance of hanok today. "GONGPO" that supported the roof expanded even further, transcending the boundaries between decoration and structural elements.

최재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옥수동 86, 488, 481-2,
금호동4가1523 (저자도)

프로그램

장례시설, 수분해장시설,
전시시설, 공연시설

죽음을 대하는 과거의 방식이 여태껏 유효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시대가 변화하고 삶이 변화한 만큼 죽음 또한 그럴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도 개인이 존엄한 죽음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장례방법과 이를 위한 건축을 제안한다. 오늘날 무연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는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를 보편적인 죽음의 형태 중 하나로 만들 것이다. 1인가구 및 무자녀 가정이라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증가하고 앞으로 계속 발생할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과 장례를 제공하는 공영 복합 장례시설을 제안한다.

Just because the past way of dealing with death has been valid so fa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t will be sustainable in the future. As times have changed and lives have changed, so will death. I propose a new funeral method for individuals to enjoy a dignified death despite rapidly changing social changes and construction for this. Today, the number of deaths without relatives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will make deaths without relatives one of the most visible forms of death in the future. For the changing socie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hildless families, the facilities and systems necessary for them to die are insufficient. As a result, I propose a public complex funeral facility that a death perspective for the increasing and continuing deaths without relatives and provides minimal dignified death and funerals.

하신영

홍익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성동구 독섬로 365
성수공업고등학교

프로그램

상업 및 교육시설

현재 한국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를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재창조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이트인 성수공업고등학교는 성수동에 위치하여 성수동의 분위기인 구 + 신 이라는 컨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적으로 분리된 세대를 합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창업 교육 시설과 새로운 유입 인구를 위한 떠오르는 요식업을 함께 진행하는 요식업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기존의 동선을 유지하여 가치를 보존하고 새로운 매스와 공간으로 전체를 활성화한다.

Currently, Korea is showing a rapid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low birth rate. Accordingly, a project to recreate schools that are closed as new educational spaces is carried out. Seongsu Industrial High School, a site, is located in Seongsu-dong and intends to proceed with this project under the concept of old + new, the atmosphere of Seongsu-dong. In order to combine locally separated generations, a R&B start-up support center will be established that conducts start-up education.

위영진

서울시립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1가길 19 일대

프로그램

공유오피스, 도서관, 카페

도시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한편, 건축은 도시에 속하고 도시를 이룬다. 도시의 변화에 건축은 반응한다. 반대로, 건축의 힘으로 도시가 변화할 수도 있다. 계속되는 변화와 그에 따른 상호작용 속에서 건축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설계는 도시의 변화를 상정하고 진행되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이 건물이, 변화를 반영하고 또 다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랐다.

Cities keep changing. Architecture belongs to cities, and it also forms the city. Architecture responds to urban changes. By the way, the city is affected by architecture. How can architecture exist during continuous change and interaction? This design was carried out in the supposition of urban change. As this building is positioned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 hoped that it could reflect continuous changes, and create changes again.

정왕기

서울시립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25

프로그램

상업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문화시설

전농동은 서울의 전형적인 저층 주거지로, 최근 대규모 주거 단지 재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시 조직을 없애는 대규모 개발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도시 조직을 유지하며 대지 용도에 맞춰 새로운 상업 지구로의 마스터플랜을 제안한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을 도입해 도시조직의 내부는 저밀도로 보존하면서 외부는 고밀도로 개발하여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가진 상업 지구를 개발한다. 함께 제시하는 SEOUL HYPE는 TDR의 예시로, 도시 조직의 내외부를 녹지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층과 3층의 공개 공간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프로젝트이다.

Jeonnon-dong is a typical low-rise residential area in Seoul, which is transforming into a large-scale residential complex redevelopment. Is there any other alternative to large-scale development that eliminates urban organization? We propose a master plan to maintain the urban organization and develop it into a new commercial district. By introducing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TDR), we develop commercial districts with new skylines by preserving the interior of urban organizations at low density and developing the exterior at high density. SEOUL HYPE is an example of TDR, a project that plays a role in connecting green spaces inside and outside urban organizations and secures publicity through open spaces on the first and third floors.

전지호

서울시립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91-2

프로그램

도서관

휘발성 지식을 습관적으로 습득하는 디지털 기반사회에서, 디지털이 초고도화된 대한민국의 리터러시 능력은 세계에서 최하위권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타인과의 만남이 갈수록 적어지는 현실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들끼리의 친근감 및 유대감이라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도서관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a digitally based society where volatile knowledge is habitually acquired, the literacy rate in Korea, an ultra-digitized country, has fallen to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 a new type of library by utilizing the human psychology of friendliness and bonding between people with the same interests in a reality where we meet fewer and fewer people.

Architecture of two different lifespan for construction sites

허해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상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421

프로그램

주민 문화 시설

이문동에는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서 진행 중인 재정비 사업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정비 사업, 개발사업 등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빌딩 등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그 기간 동안 많은 인력과 장비, 물자가 오가며, 근처에는 함바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거대한 방음벽이 설치되는 등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이유, 공사가 끝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로 공사장의 노동자들과 공사장 근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축이 단순히 공사가 끝나면 철거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설 현장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거나, 공사 후에도 남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공사 기간은 참고 살아야 하는 시간에서 나아가 다채로운 삶의 방식이 모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n Imun-dong, an apartment complex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the largest of the ongoing revitalization projects in Dongdaemun-gu, Seoul. Large-scale construction sites such as apartments and buildings for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significantly impac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ith massive amounts of workers, equipment, and materials coming and going, ham-ba diners popping up nearby, and huge sound barriers being installed. However, the quality of life of the workers and the people living near the site is not guaranteed because it is temporary and will disappear when the construction is over. If the architecture needed at this point does not simply be demolished or disappear after the end of the construction but can be reused at another site, or can remain and be useful after the period, the construction period can become a time when various ways of life come together, rather than a time to endure.

이동찬
광운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9 외 21개

프로그램
도시 농업시설, 주택

FFC는 도시 농업과 주거 프로그램이 융합된 근미래 배경의 프로젝트입니다. 도심에 밀도 높은 농업 주거단지가 생겨난다는 발상의 배경은 국제적 문제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기후 이상으로 인한 식량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각 국가가 자국의 생존을 위해 식량의 수출 제한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식량의 자급자족 능력은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 의존도는 8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 농촌의 고령화 및 소멸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식품의 제배가 극도의 고가치의 행위가 되었을때, 농업이 도시에서 행해지게 되는 상황은 단순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이라는게 FFC 프로젝트의 출발점입니다.

As our life time is getting longer, interest of 'well-dying' is increasing too. But we do not talk about the place where we die. In reality, we have no choice but to choose the hospital as the last place of our death, we don't even have an option. I tried to protect the dignified death of individuals in the future society by presenting a paradigm place in the process of dying. 'City for the Dead' provides a space to design moment of death and the after. Each architectural element asks the public about the death of individuals. It asks what a good death is and what space supports a good death. And it cries out silently that there is no death that is not sublime.

김철휘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상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프로그램
전시시설

송파구의 풍납토성은 2천여 년 전 백제 시대의 왕궁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이다. 서울시는 토성의 원형을 제외하고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어지럽혀진 내외부를 재정비할 계획을 세웠고 풍납토성과 풍납토성 내부 풍납동은 다가올 미래에 완전히 비워져 공원화될 예정이다. 겹 형태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백제 이후 많은 시간적 레이어들을 저장하고 그 모든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풍납토성 일대는 미래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토성을 기준으로 서쪽엔 한강이, 동쪽엔 미래의 서울 도심 을, 토성 내부는 백제로 돌아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시간적 레이어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백제로 돌아가기 이전 풍납동의 도시가 지하로 말려 들어간 듯한 생각을 하며 공간적 예측이 가능한 지상이 아닌 지하 공간에 새로운 시간을 담을 땅을 제안한다.

김려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66,1267

프로그램

업무시설

The Pungnap Fortress (Pungnap Toseong) in Songpa-gu surrounds the royal palace of the Baekje era, dating back over two thousand years. The city of Seoul plans to revitalize the disordered and haphazardly developed internal and external areas, excluding the original form of the earthen fortress. Both the Pungnap Toseong and the Pungnap-dong area within it are slated to be completely emptied and transformed into a park in the coming future. Preservation efforts extend beyond the superficial form to encompass the various temporal layers since the Baekje era, ensuring the conservation of all their historical value. The Pungnap Toseong area holds the potential for diverse content in the future. To the west, the Han River serves as a reference point, while the east envisions the future Seoul cityscape. The interior of the fortress may evoke the appearance of Baekje. I envisioned incorporating new temporal layers, capturing the essence of the time before the city of Pungnap-dong returned to Baekje. Proposing a land that transcends spatial predictions on the surface, it suggests creating a subterranean space to house new temporal dimensions, evoking the notion of a city that seemingly submerged underground prior to returning to the era of Baekje.

친환경 에너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BIKITECTURE는 에너지를 매개로 자전거와 건축을 접목한, 자전거 출·퇴근자를 위한 그린 에너지 오피스 프로젝트이다. 자전거로 발생하는 동력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 발생 수단이 되며, 더불어 에너지의 소비는 줄어들게 된다. 자전거의 접근이 용이한 양재천변에 에너지의 흐름을 수용하는 친환경 오피스를 계획하며 교통과 건축, 자전거와 공간의 관계는 에너지를 통해 융합된다. 이로써 일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BIKITECTURE, based on an eco-friendly energy scenario, is a green energy office project for bicycle commuters that combines bicycles and architecture with energy as a medium. The power energy generated by a bicycle becomes a new means of energy generation, and energy consumption is reduced. An eco-friendly office that accommodates the flow of energy is planned along the Yangjae Stream, which is easily accessible by bicycle,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nsportation, architecture, bicycles, and space are fused through energy. This maximizes everyday energy efficiency and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sustainable cities.

31

City for the Dead : 죽은자들을 위한 도시

이동원
광운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335일대
서래섬

프로그램
장사시설, 전시시설

오래 사는 것과 죽어감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임종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생의 마지막, 병실을 임종장소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마지막 공간에 대한 선택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에 죽어감의 과정에 패러다임 장소를 제시해 미래사회에서 개개인의 존엄한 죽음을 지키고자 했다. '죽은자들을 위한 도시'는 삶의 마지막에서 죽는 순간과 그 이후의 모습까지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각각의 건축요소들은 사회 전반적인 대중에게도 개인의 죽음에 대해 묻는 장치로써 활용된다.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이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다. 그리고 어느 하나 송고하지 않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조용히 외친다.

As our life time is getting longer, interest of 'well-dying' is increasing too. But we do not talk about the place where we die. In reality, we have no choice but to choose the hospital as the last place of our death, we don't even have an option. I tried to protect the dignified death of individuals in the future society by presenting a paradigm place in the process of dying. 'City for the Dead' provides a space to design moment of death and the after. Each architectural element asks the public about the death of individuals. It asks what a good death is and what space supports a good death. And it cries out silently that there is no death that is not sublime.

32

The data - pump

송찬
중앙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8-5
(흑석유수지)

프로그램
데이터센터, 도시농장문화센터

The data - pump는 빗물펌프장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미래의 서울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을 제안한다. 빗물펌프장의 물은 데이터센터의 냉각수와 도시농장의 관개수로 재활용되며 건물과 도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data - pump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지속 가능한 건축의 미래를 제시한다.

"The data - pump proposes infrastructure and cultural facilities for the future of Seoul through the use of a rainwater pump station system. The water from the rainwater pump station is recycled as cooling water for data centers and irrigation water for urban farms, aiming to maintain the homeostasis of the building and the city. The data - pump injects new energy into the community and presents the future of sustainable architecture."

서보석
한양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프로그램
전시시설

폐 채석장은 인류세라고 불리는 시대의 파괴된 경관으로 대표적인 지질학적 모습 중의 하나다. 깎여진 단면은 마치 벌거벗은 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대로 놔두거나 다른 폐기물로 깎인 부분을 채우는 기존의 방식 대신 깎인 부분의 산을 더 비워내는 방식으로 채석해 모듈화 된 공간을 형성한다. 연속되는 채석된 공간의 돌기둥들과 함께 캐스팅한 콘크리트와 철골을 통해 공간을 형성한다. 자연과 인공을 병치 시키는 방법이다. 단단한 도심속의 벽인 남태령 절개지에 의도된 경관으로서 채석장의 모습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담아낸다.

The abandoned quarry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geological features of the destroyed landscape of an era called the Anthropocene. The cut cross section reminds us of a bare mountain. Instead of the previous way of leaving it as it is or filling the shaved part with other waste, quarrying is performed by emptying the cut part of mountain to form a modular space. The spatial structure is reinforced through casted concrete and steel with stone pillars in successive quarried spaces. It is a way to juxtapose nature and artifacts. It captures new possibilities in the shape of quarry as an intended landscape, not in a shape of mountain, as a destroyed landscape in Namtaeyeong Abandoned Quarry, a solid wall in the city center.

곽지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프로그램
공원, 문화시설

도심의 밀도와 인구밀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시숲의 밀도는 제한되어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여의도에 숲을 수직으로 조성해 제한된 지역에 더 많은 나무를 심게 된다. 수직숲의 구조는 식물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른 인공숲의 느낌을 준다. 자연과 인공물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연을 제안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 건물은 고밀도 숲을 조성하여 도시에 혁신적인 경관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동시에 식물들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하여 도시환경의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

The density of the city center is increasing, and the population density is also steadily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density and size of parks and urban forests are limited. More trees will be planted in a limited area by building forests vertically in Yeouido, where the population density is high. The structures of the vertical forest utili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lant to give it another artificial forest feeling. A new form of nature is proposed as a recon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objects that cannot be made by humans and artificial objects that cannot be made by nature. Symbolizing the harmony of nature and humans, the building creates high-density forests, providing innovative landscapes for the city and providing people with comfortable and relaxing spaces. At the same time, forest plants play a role in absorbing and purifying fine dust,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fine dust in the urban environment.

김유림, 박근우
한양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프로그램
주거단지 및 공원, 복합문화시설

우리가 제안하는 여의도 주거단지 재개발 MASTERPLAN은 단일화된 기존의 회색 아파트 단지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초고밀도 개발 논리에 따라 우리의 땅과 하늘은 줄어든다. 풀 한 포기, 하늘 한 점이 중요해질 미래의 아파트 단지는 그저 닫힌 주거공간이 아닌 여러 색을 가진 활기찬 도시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계속해서 올라갈 숨막히는 용적률 속 우리의 땅, 우리가 딛고 서는 GROUND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모두에게 활짝 열린 여의도의 도시공간이자 주거공간, CITY IN A SPECTRUM은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

Our Proposal of the Yeouido residential complex redevelopment Masterplan strives to break away from the typical, unified apartment complex. According to the logic of high-density development, open grounds are becoming scarce. Apartment complexes in the future should function as a vibrant urban space with spectrum, not just a residential urban island. In the midst of uprising concrete walls, where should our 'ground' exist? CITY IN A SPECTRUM, wide open grounds and residential space in Yeouido, is our answer to this question.

곽건호
홍익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6-42

프로그램
문화/행정복지시설

기존의 주민센터가 문화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주민센터를 계획하였다. 서교동은 2/30대가 많고 타지에서 방문하는 인구 역시 많다. 근처에 미술과 음악에 특화된 홍대거리가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변화가이다. 키워드인 젊은 세대, 미술, 음악에 집중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같은 면적으로 층이 올라가는 기존의 건물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여 각각의 큐브로 분리하여 서로 맞물리도록 배치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중앙의 공간은 유리 로 덮어 빛이 들어오게 하고 1층을 민원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큐브끼리 맞물리며 생긴 공간은 실내 동선과 야외 테라스로 활용하였다.

In order to improve the fact that the existing community center is poor in cultural programs, a community center such as a playground where residents can freely enjoy various cultural lives was planned. Seogyo-dong has a lot of people in their 2/30s and a lot of people visiting from other countries. It is a downtown area representing Seoul, with Hongdae Street specialized in art and music nearby. Cultural programs were organized focusing on the keywords young generation, art, and music. Existing buildings with floors rising in the same area were thought to be boring, so they were separated into each cube and arranged to engage with each other. The central space secured in this way was covered with glass to allow light to enter, and the first floor was used as a civil service space. The space created by the interlocking of the cubes was used as an indoor movement and an outdoor terrace.

배다희, 조희재
송실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13
성산중학교

프로그램
피난소

탄소배출량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폭우가 반복되어 매년 해수면이 상승하며 잇따라 일상을 잃은 도시 난민들이 증가한다. 이 프로젝트는 그들을 수용하며 피할 수 없는 범람과 침수라는 두려움의 상황을 공존할 수 있는 자연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간 개발 필요성, 장소의 분포성, 주거 모듈을 위한 그리드, 피난민의 생활시설을 담을 넓은 면적을 갖춰 그들을 수용할 장소로서 적합하다. 물을 끌어들이어 작물을 기르고 에너지를 생산하며 물에 부유하여 사는 이곳의 삶의 방식은 지속가능하며 주체적이다.

Due to increasing carbon emissions and climate change, typhoons and heavy rains occur repeatedly, and the number of urban refugees who lose their daily lives due to rising sea levels every year is increasing. This project proposes to embrace them and see them as nature where inevitable floods and fearful situations can coexist. Existing schools are suitable as refugee accommodation sites due to the need for space development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location distribution, grids of residential modules, and large areas that can accommodate refugees' living facilities. The lifestyle here, which draws water to produce energy and floats on the water to grow crops, is sustainable and independent.

이동휘
중앙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3 일대

프로그램
식물원, 문화시설 및 연구시설

‘식물원은 왜 도심에 없을까?’

식물원은 ‘식물 박물관’이다. 박물관의 수집, 보존, 전시의 역할은 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식물원의 외부 정원은 넓은 대지가 필요하기에 DOWN-SIZING이 불가능하여, ‘식물 갤러리’의 유형은 부재한 상황이다. 장마, 연교차 등으로 인해 외부 정원과 도시공원과의 차이는 사실상 수종의 희소성 및 특수성뿐이다. 겨울철, 넓은 외부 정원은 그저 거친 바람이 부는 사막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식물원이 도시에 위치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의 공원을 외부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Why Aren't Botanical Gardens in Downtown?’

A botanical garden is a “museum of plants”. The role of collecting, preserving, and displaying of museums is the same for botanical garden. However, the external garden of a botanical garden requires a large area of land and cannot be downsized, so the type of ‘plant gallery’ is absent. Due to the rainy season and annual temperature range,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external garden and the city park is practically the rarity and specificity of species. In winter, the huge external garden simply transforms into a desert where the harsh wind blows. Then, what is the reason for botanical gardens not being located in downtown? Can't urban parks be utilized as external gardens?

이지민

이화여자대학교

대상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12-6 일대

프로그램

산업-관광 복합시설

본 프로젝트는 서울에 위치한 한강의 물을 기반으로 문화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건축적으로 결합한 공간을 제안한다. 한강 물의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수장과 한강의 아름다운 수공간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이 기능적이면서도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작업자 중심의 산업시설과 방문객 중심의 문화시설을 유형적으로 분석하고 조합하여 한강 물이 두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기능하고 감상할 수 있는 8개의 공간으로 도출하였으며, 사이트 맥락을 고려하여 총 3개의 연결된 건물로 구성되었다.

This project suggests an architectural space that combines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ased on the water of the Han River located in Seoul. The project consists of water purification plant where we can solve the water quality problem of the Han River and the park where we can enjoy the beautiful water space of the Han River, which can be functionally and visually harmonized. By typically analyzing and combining worker-centered industrial facilities and visitor-centered cultural facilities, it is designed with eight spaces where the Han River water can function and appreciate in two aspects, and it was designed in total of three connected buildings considering the site context.

이지민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상지

마포유수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9
마포주차장)

프로그램

여가시설

수도과 한강 이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조세와 물품이 모이는 상업 중심지였던 마포진이 한강종합개발사업과 마포대교의 건설을 통해 '잃어버린 땅' 이 되어간 과정을 조명한다. 물을 가두고 고이게 하는 현재의 유수지에 물의 흐름을 타며 순환과 교류의 가치를 담았던 옛 수옥을 떠올린다. 잃어버린 땅을 찾아가는 여정은 유수지의 덮개를 열고, 물의 표면을 드러내며, 물을 머금은 브릿지로 한강까지 나아간다. 브릿지의 공극 사이사이에 스테이와 프로그램이 삽입된다. 옛 수옥의 기억을 잠시 점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에서의 스테이로 재해석하며, 부유하는 감각으로 장소를 점유하고 교류하는 경험을 담은 건축을 제안한다.

Mapojin, which wa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hub connecting the capital to the south of the Han River and a commercial center where taxes and goods gather, sheds light on the process of becoming a "lost land" through the Han River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construction of Mapo Bridge. It recalls the old Suok, which contained the value of circulation and exchange while riding the flow of water in the current reservoir that traps and stores water. The journey to find the lost land opens the lid of the reservoir, reveals the surface of the water, and goes to the Han River by a bridge holding water. Stays and programs are inserted between the gaps in the bridge. It reinterprets the memories of the old Suok into a stay in a shared space that everyone can occupy for a while, and proposes an architecture that contains the experience of occupying and exchanging places with a sense of being floating.

SHAPING SEOUL'S TOMORROW

A COLLECTIVE VISION BY ARCHITECTURE STUDENTS
(NEXT GENERATION OF ARCHITECTS)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

미래세대 건축가들의 집단 비전

SEOUL MY SOUL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서울도시건축전시관
